

정수복의 '응답하는 사회학'



왜 사랑과 과시가 뿔뿔해가?

학교 교과서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가르치지만 현실 속의 인간은 일등에서 꼴등까지 순위가 매겨진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느냐 무시를 당하느냐는 그 사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순위에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오늘날 세상에서 순위와 석차를 매기는 기준은 무엇인가. 주로 돈과 '가방끈'과 직업이다.

일류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며 상당한 재산까지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질리고 들어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갑대'를 나와 비정규직과 실직 사이를 오가는 낮은 지위에 처한 사람들은 늘 열등감에 시달리게 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면 서열상 하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열등감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밑의 사람을 '땅콩' 보듯 하는 게 현실이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겸손이 덕목이었다. 돈이나 학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그걸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못나 사람으로 여겨졌다. 아무 데서나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으로 취급되

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세상 물정이 한참이나 바뀌면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기술'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일단 서로 말을 건네는 사이가 아닌 익명의 사람들 사이에는 외모로 자신을 과시해야 한다. 의상과 구두, 액세서리와 가방, 타고 다니는 승용차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야 한다. 상류층일수록 몸매를 가꾸고 성형수술로 얼굴을 꾸미고 명품으로 몸을 두르고 보란 듯이 자신의 위치를 과시한다. 중산층은 그들을 선망하며 그들을 뒤쫓아 모방하기에 바쁘고 하류층은 포기한 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미워할 뿐이다.

그러나 진짜 자랑은 서로 말을 트고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직업상의 만남은 명함을 내미는 예식으로 시작된다. 거기에는 주소와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이 적혀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소속과 직위다. 대기업 직원, 고급공무원,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버젓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명함으로 자신을 표현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 실직자, 비정규직 종사자, 가정주부, 은퇴자들은 그냥 구두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표현한다.

어느 고급 노인요양원에 들어갔다가

그때 사람들이 자랑을 섞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다. 파출부도 일하러 온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이 삼성물산에 다니다"고 말하기도 했고 택시기사가 "우리 딸이 미국에 유학 가 있다"라고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하기도 했으며, 어떤 자영업자는 자기 아버지 재산이 백억 원 정도 될 거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어느 주차장 관리자가 고객에게 "여보 사람 무시하지 마! 우리 아들도 서울대학 다니!"라는 말을 내뱉는 것을 듣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상황에 맞지 않게 자랑과 과시를 일삼는 것일까? 그건 그들이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술이다. 자신은 비록 낮은 지위에 있지만 자신의 가족 구성원은 서열상 상당한 위치에 있음을 내세워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상위권에 속하는 잘난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태도로 하위권 사람들을 내려다 볼 때 하위권에 속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났어 정말!"로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상위권 사람들의 무시와 잘난 척하는 행동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지어내서라도 자기 자랑을 해야 무시당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고급 노인요양원에 들어갔다가

적용이 안 되어서 다시 나온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요양원에 사는 다른 할머니들이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손자 손녀 자랑, 학벌 자랑, 직업 자랑, 돈 자랑, 자기가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안다는 자랑 등을 해대는데 그 할머니는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없었다. 그래서 늘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그곳에서 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어디 그 노인뿐인가. 요즘 젊은이들은 SNS를 통해 익명의 사람들에게 이미지로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한다. 실생활에서도 외모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학벌, 취향, 지식, 경험 등 자랑할 만한 것은 다 드러낸다.

오늘날 삶은 모든 영역에서 순위 올리기로 돌아들어 버린 것 같다. 학교 교실에서 기업체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의 목표는 점수와 순위 올리기로 정해져 있다.

이런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은 쉽게 무시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존경은 못 받더라도 무시당하고 살기는 싫다. 그래서 거짓 자랑과 뻥뻥스러운 과시가 횡행한다. 다시 겸손이 미덕이 되는 시대는 영영 물 건너 가 버린 것일까? (사회학자·작가)

社說

서류 위조해 보조금 빼돌릴 때까지 뭘 했나

일선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부당 수령 사건이 또 터졌다.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탓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불법이 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전남도 감사로 적발된 사례는 느슨한 보조금 감독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A군은 2013~2015년 기초계 관련 예산에 보조금 25억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 법인은 일부 무자격 조합원으로 구성됐음에도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군은 공모와 심의 절차마저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했고, 이 법인은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1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챘다가 들쭉났다. 또한 서류를 조작해 보조 지원 시설을 담보로 1억 3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부담으로 총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B군의 경우 운영 실적도 없는 데다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인 조합법인을 사업자로 정해 한우 조사료 가공공장 설치 보조금 9억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

자는 가공공장 시공업체로부터 3억 3000여만 원을 되돌려 받아 자부담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알바무리고 있다고 한다.

두 경우에서 보듯이 보조금 비리는 대부분 사업자의 자격 미달과 불투명한 자금 운용에서 기인한다. 사업 기초 단계부터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만 두 루무술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이 나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자가 사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과 결탁하면 좀처럼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앞그چه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은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염포만 놓지 말고 출발 단계부터 다른 지자체끼리 상호 교차 검증을 벌여, 위반이 드러나면 사업자를 즉시 교체하거나 엄벌함으로써 더 이상 아까운 세금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환점 돈 민선 6기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오는 30일로 민선 6기의 전반기를 마치고 있다. 4년 임기의 절반을 마친 두 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렵게 한국전쟁, 광주시와 함께 애너지밸리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았으며 숲과 섬이라는 고유 자원과 남도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통합을 둘러싼 광주·전북과의 불협화음은 상상을 내건 이 지사의 민선 6기 지역 미래비전과 배치돼 아쉬움을 남겼다.

앞으로 윤 시장과 이 지사의 후반기는 자동차 100만대 조성, 세계수영대회 준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센터 조성, 고흥 무인기(드론) 분야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적잖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민선 6기 청사진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전연속되는 농어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고통화와 인구 감소에 허덕이고 있는 전남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고 한국전쟁, 광주시와 함께 애너지밸리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았으며 숲과 섬이라는 고유 자원과 남도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통합을 둘러싼 광주·전북과의 불협화음은 상상을 내건 이 지사의 민선 6기 지역 미래비전과 배치돼 아쉬움을 남겼다.

앞으로 윤 시장과 이 지사의 후반기는 자동차 100만대 조성, 세계수영대회 준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센터 조성, 고흥 무인기(드론) 분야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적잖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민선 6기 청사진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료칼럼



김 대 호 우리들병원장

장마철 낙상사고

많은 고온다습(高溫多濕) 현상으로 땀이 마르지 않고, 세균이나 곰팡이의 번식이 활발해져 식중독이나 피부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또 땀이 잘 마르지 않는 등 체온조절에 이상이 생겨 불면증이 생기고 불쾌지수도 높아진다.

또 비가 내리는 날은 흐리고 저기압이 형성돼 관절 내 압력이 올라가 관절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통증 부위에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를 따뜻한 물로 가벼운 찜질과 목욕을 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 없다면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고 살짝 땀이 날 정도의 운동도 추천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낙상사고라고 한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낙상사고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 13%가 낙상사고로 사망한다고 한다. 노인들의 전체 사망 원인 중에서는 암 등에

이어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방심(放心)으로 높은 사망사고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런 낙상사고는 바깥보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더 많다.

낙상사고는 침대나 계단을 내려오거나 화장실에서 움직이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낙상사고는 가벼운 찰과상이나 염좌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손목골절이나 엉덩이골절 또는 척추압박골절을 하는 경우 쉽게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 눈길은 위험해서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장마철에 습기 많은 곳에서 방심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실내에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첫 번째로 집안에서 문지방이나 전깃줄 등 바닥에 걸릴 만한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화장실은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거나, 사용 후 물기 제거, 손잡이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로 가엾 등 바닥에 까는 것은 양면테이프 등으로 잘 고정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로 조명을 밝게 하고 밤에도 조명을 켜놓는 것이 좋다.

나이가 많을수록 근력이 약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젊은 사람들에 비해 쉽게 넘어질 수 있다. 노인들은 가벼운 지팡이나 보행기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걷기운동으로 근력을 강화하고 골다공증에 대한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는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주의하여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관절통이나 허리통증이 생기거나 낙상사고를 당했다면 쉽게 여기서 말고 반드시 가까운 전문병원으로 가서 진찰받을 것을 권유한다.

기 고



김 현 철 동강대 창업보육센터장

창업교육으로 창직(創職)의 길을 찾자

방 등 대부분의 생활필수품을 재료와 디자인만을 구매해 가정에서 프린트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많은 제조업체와 가게가 자취를 감추고 관련 일자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유통과 마케팅의 역할도 사라지게 될 것이니 여기에 종사하던 일자리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모바일기기로 영업할 수 있거나 영업사원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더욱 지금의 직업군들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로봇산업의 부상으로 전통제조업의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고, 도우미로봇의 성능개선과 자동화 시스템의 발달로 웨어러나 바텐더와 같은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소매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자리까지도 급격히 줄어들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무인자동차가 일반화되니 택시 기사나 트럭운전자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법무사, 회계사, 변호사와 같이 '사' 자를 쓰는 직업은 물론 경리직원, 보험사, 은행원과 같은 직업들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시대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일자리와 노동이 없는 세상, 이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직장이 사라지고 팀워크가 필요없는 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는 근로자는 점차 1인 기업이 되어 독립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고 월급의 개념도 사라지며, 네트워크에서 프로젝트 형태로 일을 받아 프로젝트당 혹은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예측은 과장되거나 현실성 없는 소설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고속인터넷이 시작된 이후의 IT기술의 광폭적 발달을 보면 짐작할 정도로 빨리 다가오는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학은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어떤 것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인가? 혹은 현재의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탄한다. 연공중심대학은 소수 정예화되고 우수 인재를 중심으로 기술의 발전을 기하여 사회 전반을 리드해 나가고, 나머지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구조조정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교양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은 구태의 수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가오는 변화를 적절한 과제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점차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취업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노년이 되어서는 은퇴를 하는 경우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인구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실사 정년을 채우고 은퇴하더라도 살아온 만큼의 세월

이 또 기다리니 경제활동 없이 수십 년을 보낼 수도 없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기 점점 어려워진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창조의 기쁨을 훈련시켜 주는 것, 즉 창업교육만이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방안이다. 공 창업교육은 직업을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업을 만드는 창직의 한 방안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창직(創職)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것이 지금의 대학들이 실현해야 할 교육적 과제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대학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아직도 진부한 생각에 갇혀계신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창업교육의 목표가 구태 개념의 창업이 아니라 신사고의 창직이란 것을 이해하여야 하고 이를 실패(試誤)해야 한다. 창업교육은 관련 강좌를 통하여 창의성 개발과 창업의 실무를 훈련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반복훈련하고 협동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바를 전해주고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려 다가오는 미래가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준비되어진 시대가 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無 等 鼓

지난 2009년 '위남소리'가 상영되던 광주극장의 풍경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예술영화 전용관인 광주극장은 당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한 데 그때만큼은 극장 밖으로 긴 줄이 늘어났다. 이종렬 감독이 극장을 찾은 날은 800여 명의 관객이 몰리기도 했다. 로비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커피를 사기 위해서도 줄을 서야 했다.

당시 사전을 찌는 관객들이 많았다. 극장이 사람들로 넘쳐나는 모습을 '기록'해 두고 싶은 이들이었다. 극장이 문 닫을까 노심초사해 온 단골손님들은 그렇게 모두들 '내 일'처럼 기뻐했다.

지난해 스웨덴영화제 개막식 날엔 많은 비가 내렸다. '광주극장에서 또 이런 영화제를 보고 싶어 했다' 단골들은 아는 이에게 연락해 극장을 찾게 하기도 했다. 극장에서 판매하는 커피 값을 올리라고 '감오'(?!)한 이들도 관객이었다. 커피머신 역시 관객이 기증했다. 겨울 관람의 필수 아이템 담요도 마찬가지다. 관객들은 광주극장을 단순한 상업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와 내가 주인공인 '우리의 공간'으로 여긴다.

최근 광주극장이 '출로서기'를 선언했

다. 2003년부터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세 제도가 극장의 독립성과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박탈한다고 판단해 지원금을 포기한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수익의 35%를 차지하는 지원금을 거부하는 건 예민한 각오가 아니고는 하기 힘든 결정이다.

광주극장은 관객들과 극장을 꾸려 나가기로 하고 후원회원 모집에 나섰다. 지금까지 10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사연을 함께 적어 보냈다. 어제 만난 60대 여성은 얼마와 최은희 주연 '성춘향'(1961)을 보

기 위해 극장 앞에 긴 줄을 서던 기억을 털어놓았다. 지난해 광주시립극단 '신시와화'를 관람한 이들은 작품 배경이 된 광주극장에 대한 추억을 서로 나눴다. 광주극장은 올해 여든한 살이다. 광주 사람치고 광주극장에 얽힌 추억 하나 없는 이가 있을까.

매달 1만 원이면 회원에 동참할 수 있다. 회원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고 싶은 영화가 있을 때 극장에 들르면 된다.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 함께 한 광주극장의 손을 잡아 줄 때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광주극장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